

## 强肝劑로 사용된 生藥의 調査 研究 (III)

張 日 武 · 尹 惠 淑  
서울大學校 生藥研究所

### Plants with Liver Protective Activities (III)

Il-Moo Chang and Hye Sook Yun (Choi)  
Natural Products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Total fourty-four medicinal plants described in old literatures to be hepatotonic were evaluated their potential hepatotonic activities against an animal model of hepatitis. Tweenty-seven plants extracts appeared to be significant hepatotonic activities, whereas twelve plants extracts exhibited rather some toxicity. And five plants extracts showed no significant hepatotonic activities and toxicity.

과를 발표한다.

### 서 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유달리 높은 간염 발병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여러 의학 통계가 있다<sup>1-3)</sup>.

간염 발병율은 일본인보다 약 10배, 기타 아시아 여러 나라들보다는 대략 약 3배가 높음을 보여준다<sup>4)</sup>. 이러한 높은 발병율이 우리나라 사회의 위생시설 및 수준에 의한 것인지 또는 한국인의 독특한 식생활에 연유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며 더욱 세밀한 역학적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밝혀질 것이다.

간염은 간경변으로 진행되거나 다른 질환을 병발하기도 하는데 임상적으로는 아직 특효약이나 효과적인 치료약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들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sup>5)</sup>. 그러므로 저자들은 우선 문헌적 조사를 통하여 동서양에서 간질환에 사용된 식물을 검토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sup>14)</sup>, 이들 식물중에서 구입 내지 채집이 가능한 44종의 식물을 베타놀로 추출하여 엑기스를 만든후 이들의 간염의 동물 실험 모델에 유효한 작용, 즉 치료 및 보간 작용을 하는지를 검색하여 그 결

### 실험 방법

실험동물 및 베타놀 엑기스 제조 실험 동물로는 dd계 백쥐를 사용하였으며 수컷으로써 무게  $22 \pm 2g$ 의 것을 사용하였다. 식물은 대부분 구입하여 음지에서 충분히 전조시킨 후 잘게 썰거나 분쇄하여 90% 베타놀 용액(베타놀 : 물, 90 : 10 v/v)을 가한 후 Reflux 상태에서 약 6시간 동안 추출한 후, 일단 추출액을 실온으로 식힌 후 여과하여, 그 여액을  $40^{\circ}\text{C}$ 에서 감압 증발시킨 후 남은 잔사를 엑기스로 사용하였다. 상기 방법으로 얻어진 엑기스는 0.9% 식염수에 녹이거나, 혼탁시켜(불용시에는 수적의 Tween 80을 첨가) 경구 투여하였다.

간염의 실험동물 모델 간염은 흰쥐에 사염화 탄소( $\text{CCl}_4$ )를 경구 투여함으로써 유발시켰으며, 자세한 실험과정 및 방법은 보고된 바 있다.<sup>14,15)</sup> 간략하게 Dose-Schedule을 설명하면, 대조군은 2개로써 하나는 0.9% 생리 식염수만을 투여한것이고, 다른 하나의 대조군으로써는 사염화탄소만 투여한 것으로 하나의 군은 10마리의 흰쥐로

구성되며, 실험 제 1 일은 대조군에 생리 식염수를 흰쥐 1마리당 0.2cc씩 투여하고, 실험군은 각각의 식물 메타놀 엑기스를 670mg/kg/마리씩 투여받는다. 제 2 일과 3일에는 실험군중 생리식염수 투여군은 계속 생리 식염수를 경구 투여 받으나, 사염화탄소군은 사염화탄소를 흰쥐 1마리당 0.13ml/kg/day 투여받고, 실험군은 일단 사염화탄소를 투여받은 후 1시간후 식물 엑기스를 투여받는다. 제 4 일에는 생리 식염수 대조군은 계속 생리 식염수를 투여받으며, 사염화탄소 대조군 역시 생리식염수만 투여 받으며, 실험군은 단지 식물엑기스만 투여받는다. 제 5 일에는 대조군, 실험군의 각각의 쥐에 hexobarbital을 50mg/kg씩 복강내에 주사한후 쥐들의 수면 시간을 측정한다.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Days				
	1	2	3	4	5
Control (Saline)	0.9% Physiological Saline Solution (Saline)				
Control (CCl <sub>4</sub> )	0.9% Saline	CCl <sub>4</sub>	CCl <sub>4</sub>	Saline	Hexobarbital
Exp. group (Extract)	extract	CCl <sub>4</sub> <sup>+</sup> extract	CCl <sub>4</sub> <sup>+</sup> extract	extract	

## 실험 결과

총 44종의 식물 메타놀 엑기스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생리 식염수만 먹인 대조군의 평균 수면시간은  $23 \pm 1.5$ 분이었고 사염화탄소를 먹인 대조군의 수면시간은  $39.3 \pm 2.6$ 분이었으면 약 16분 정도 수면 시간의 증가를 나타냈다.

엑기스를 먹인 실험군의 평균 수면시간이 사염화탄소를 먹인 대조군의 평균치와 비슷한 경우에는 (0)으로 표시하였고, 만약 20~40% 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로, 또한 40~60% 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로 표시하였으며, 실험도중 사망한 경우에는 toxic으로 표시하였다. 만약 엑기스를 먹인 실험군이 사염화탄소를 먹인 대조군보다 20~40%이하 감소된 경우는 (+)로, 40

~60%이하 수면시간이 감소된 경우는 (++)로 표시하였고, 생리식염수만 먹인 대조군의 평균 수면 시간과 같거나 약간 적을 경우는 (+++)로 표시하였다.

실험치는 하기도표에 나타난 것과 같다.

## 고찰

실험에 사용된 44종의 식물은 문헌상 간염 내지 간질환에 유효하다고 기술된 것이었으므로<sup>6~13)</sup> 이들이 진정으로 간조직 손상을 회복시키는지 여부를 수면시간 측정법으로 일단 Screen하였다. 이 방법으로 검토할 때 효과가 매우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을 나타낸 식물이 6개이고 (++)를 나타내는 것은 15개, (+)을 나타내는 것은 6개, 효과가 없고 독성도 나타내는 (0)에 속하는것이 5개, 효과도 없고 오히려 독성을 나타낼지도 모르는 (-)에 속하는 것이 6개, 현저히 독성을 나타내는 것 즉 (--)에 속하는 것이 2개이고 매우 독성이 커서 투여중 사망을 초래한 것 즉 (Toxic)에 속하는 것이 4개였다. 그러므로 (+) 이상의 것은 총 27개였고 효과가 없는 것이 5개 독성을 나타내는 것이 12개였다. 물론 본 실험의 방법으로 이용된 수면시간 측정법만으로는 간의 보간(hapatotonic) 효과나 독성 여부를 충분히 뒷받침 할 수는 없을지라도 상기 44개의 식물은 모두 보간 생약으로 기술된 점으로 보아 세밀한 과학적 검토없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좀 더 연구 검토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밀어진다.

본 실험으로 최소한 일차적인 검색효과는 성취되었다고 생각되며 본 연구진은 현재 상기 27개의 유효한 생약들의 엑기스가 나타내는 보간 효과를 더 한층 확인하기 위해 혈액중 transaminase활성도 측정 및 간조직의 병리학적 검색을 아울러 진행중에 있다.

감사의 말씀 본 연구를 위해 1978년도 문교부 정책연구비의 지원이 있었으며 이에 감사드린다.

Table I. List of Medicinal Plants and Their Liver Protective Activities.

Names of Crude drugs (Korean)	Family Names	Scientific Names	Parts of Plants	Activities
감초	Leguminosae	<i>Glycyrrhiza uralensis</i>	ra	++
결명자	Leguminosae	<i>Cassia tora</i>	sm	++
구기자	Solanaceae	<i>Lycium chinense</i>	fr	+
금모구착	Cyatheaceae	<i>Cibotium barometz</i>	rh	++
단삼	Labiatae	<i>Salvia multicorrhiza</i>	ra	+
당귀	Umbelliferae	<i>Angelica gigas</i>	ra	+
큰경퀴	Compositae	<i>Cirsium pendulum</i>	ha	-
대황인	Polygonaceae	<i>Rheum undulatum</i>	rh	++
도인적	Rosaceae	<i>Prunus persica</i>	sm	++
목통적	Equisetaceae	<i>Equisetum hiemale var. japonicum</i>	ha	++
목반하	Lardizabalaceae	<i>Akebia quinata</i>	vi	Toxic
방하기	Araceae	<i>Pinellia ternata</i>	tu	0
백줄체	Menispermaceae	<i>Sinomenium acutum</i>	ra	+
백출령	Papaveraceae	<i>Chelidonium majus</i>	ha	-
복령	Compositae	<i>Atractylodes japonica</i>	rh(alba)	##
산수유	Polyporaceae	<i>Pachyma hoelen</i>	sc	++
산자자	Cornaceae	<i>Cornus officinalis</i>	fr	0
산무나	Rosaceae	<i>Crataegus pinnatifida</i>	fr	+
세신황	Rhamnaceae	<i>Rhamnus crenatus</i>	b	##
숙지황	Aristolochiaceae	<i>Asiasarum sieboldii</i>	wp	Toxic
시호	Scrophulariaceae	<i>Rehmania glutinosa</i>	ra	++
오수유	Umbelliferae	<i>Bupleurum falcatum</i>	ra	-
용담	Rutaceae	<i>Evodia rutaecarpa</i>	fr	++
인삼	Gentianaceae	<i>Gentiana scabra</i>	ra	##
인전고	Araliaceae	<i>Panax ginseng</i>	ra	##
	Compositae	<i>Artemisia Messer-Schmidtiana var. viridis f. typica</i>	ha	-
작약	Ranunculaceae	<i>Paeonia albiflora var. trichocarpa</i>	ra	##
적하수오	Polygonaceae	<i>Polygonum multiflorum</i>	ra	--
죽시호	Umbelliferae	<i>Bupleurum longeradiatum</i>	ra	Toxic
지느러미경퀴	Compositae	<i>Carduus crispus</i>	ha	0
지실	Rutaceae	<i>Poncirus trifoliata</i>	fs	##
차전자	Plantaginaceae	<i>Plantago asiatica</i>	sm	##
창출	Compositae	<i>Atractylodes japonica</i>	rh	Toxic
천분동	Liliaceae	<i>Asparagus cochinchinensis</i>	tu	##
청상자	Amarantaceae	<i>Celosia argentea</i>	sm	--
청택사	Rutaceae	<i>Citrus aurantium</i>	fs	0
포송영	Compositae	<i>Alisma orientale</i>	tu	##
하고초	Labiatae	<i>Taraxacum platycarpum</i>	wp	-
황금	Labiatae	<i>Prunella vulgaris</i>	ha	-
황기	Leguminosae	<i>Scutellaria baicalensis</i>	ra	+
향정	Liliaceae	<i>Astragalus membranaceus</i>	ra	0
향부자	Cyperaceae	<i>Polygonatum japonicum</i>	rh	##
호황련	Scrophulariaceae	<i>Cyperus rotundus</i>	tu	##
		<i>Picrorhiza kurroa</i>	rh	##

b:bark, fr:fruit, fs:fruit skin, ha:herba, ra:radix, rh:rhizome, sc:sclerotium, sm:semen, tu:tuber,  
vi:vine, wp:whole plant.

## 문 헌

1. Kim, J.Y.: *Korean J. Int. Med.*, 18, 705(1975).
2. Kwon, H.H. and Suh, D.J.: *Korean J. Int. Med.*, 20, 423 (1977).
3. Woodson, R.D. and Cahill, K.M.: *J. Am. Med. Assoc.*, 219, 1191 (1972).
4. Advances in Viral Hepatitis, technical report series 602, W.H.O. Geneva (1977).
5. Hahn, S.S., Kim, C.Y. and Suh, D.J.: *Korean J. Int. Med.*, 20, 317 (1977).
6. Yun, G.Y.: Oriental Prescriptions, Mineru-Sa, Seoul, Korea (1964).
7. Akamu, E.: Modern Oriental Drugs, Yishiya-kusha, Tokyo, Japan (1970).
8. "Herbal Pharmacology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a Trip report of the American Her-
- bal Pharmacology Delegation; National Academy of Science, Washington D.C. (1975).
9. Heh, Joon: Secrets of Oriental Medicines-Korean Translation; Pyungyun Publishing Co., Seoul, Korea (1966).
10. Lee, S.J.: Korean Folk Medicin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shing Office (1966).
11. Lee, S.J.: *Korean J. Pharmacog.*, 6, 75 (1975).
12. Nishiyama, E.: Chinese and Folk Medicines, Sehogensha, Osaka, Japan (1970).
13. Hsu, H-Y: The Studies of Chinese Herb Medicines, Chinese Herb Medicine Committee, National Health Administration, Republic of China (1927).
14. Yun, H.S., and Chang, I.M.: *Korean J. Pharmacognosy*, 8, 125(1977).
15. Chang, I.M. and Yun, H.S.: *Korean J. Pharmacognosy*, 9, 155 (1978).